

# 리얼라이프



**표지**

앞쪽: 초등학교 어린이와 교사, 뒤쪽: 상단 왼쪽: 아이보리코스트 대통령 헨리 코난 베디의 부인 헨리에트 케이 비 베디와 전 선교부장 존 티 칼룬키 그리고 켄 칼룬키와 함께 찍은 사진, 상단 오른쪽: 런던 성전의 타노 가족, 바탕: 교회에 도착하는 어머니와 자녀, (사진 촬영: 제프 나스와 제니 칼룬키 제공)

**친구들의 표지**

열 살 된 쌍둥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2쪽 "프랑스의 구나이에 사는 클레아와 로렌스 큐 세링" 참조, (사진 촬영: 리처드 엠 롬니)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0 와드 가족의 일원이 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16 아이보리코스트의 교회 개척자들 로버트 엘 머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온전하게 생활하여 영생을 준비함
- 26 동기를 부여해 주는 실물 공과 존 알 하우
- 28 우리 자녀들이 실족할 때 존 케이 커머 장로
- 38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줄 빵 마르셀라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에레스

**청소년란**

- 8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애너 앨버노
- 15 물문 메시지: 지도자를 따르라
- 40 훌륭한 성품 잭 와이얼드
- 46 주님의 손에 크리스토퍼 스윈슨
- 48 친구가 됨 머러서 디통스



15쪽 참조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 사귀기: 프랑스 구나이의 클레아와 로렌스 큐세링  
마빈 케이 가드너
- 6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8 이야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에밀리 케넌 오길
- 11 심심풀이
- 12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다니엘의 선택 앤 우드버리 무어
- 14 아빠의 요술 바이어러 에이치 블레이크

친구들, 14쪽 참조



26쪽 참조



40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편집장:** 고든 비 칭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틴, 리처드 지스크로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미어린

**편집인:** 말린 케이 젠슨

**고문:** 케이 이 젠슨, 존 엠 매드슨

**교파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톰슨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밥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테일러

**제작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스 벤 켈렌

**신입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엠 피터스

**생신:**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텐슨, 토마스 에스 그로버그, 테니즈 커티, 제이슨 엘 멀포드, 디나 엘 소렌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6호, 제 36권, 제 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루마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rch 1999 vol.36 No.3. LIAHONA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시련으로 인해 축복 받음**

제가 1998년 5월호에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편집장의 "역경의 축복"이라는 대편집장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총관리 역원뿐 아니라 지역에 계신 지도자들을 사랑합니다.

이 기사는 제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떠올리게 했지만, 또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련은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저는 복음 선교사로서 이러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르셀로 레이버 장로,  
칠레 오소르노 선교부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함**

리아호나(영어판)를 받아 본 이후, 저는 매 월호에 있는 기사를 공부하는 것에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들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커지고 인생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하루 일과를 헤쳐 나가기 위한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엘드릭 비 봉카엘,  
산 마테오 지부,  
필리핀 문달반 지방부

**참된 교회를 찾음**

저는 항상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많은 교회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지만 한번도 그들의 교리를 편안하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 덕분에 저는 지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의 교회의 합당한 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 드와르(불어판) 다음 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데기종 니스통,  
까르푸페이유 워드,  
아이티 포르-도-프랑스 스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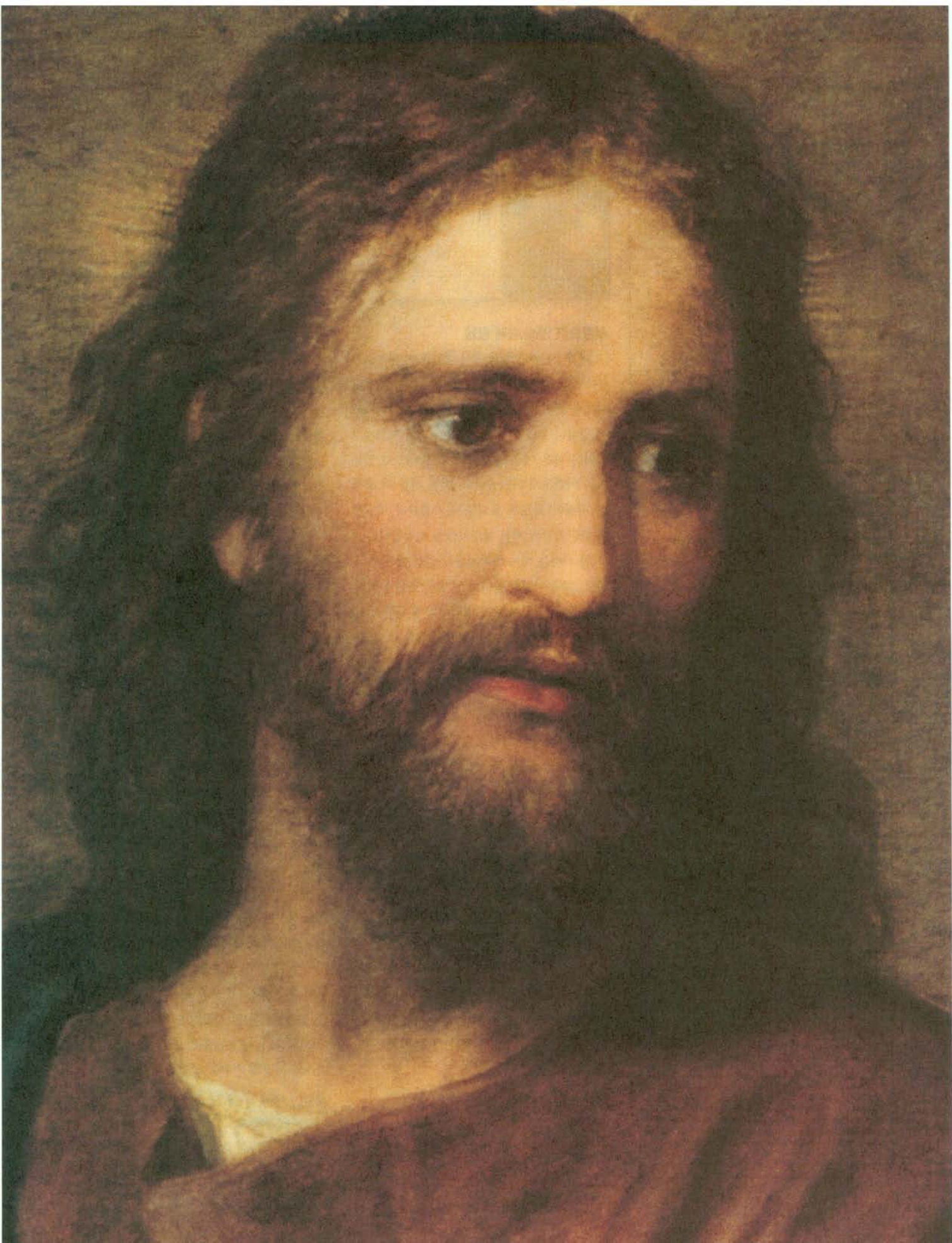
**영감을 주는 용서의 본보기**

1998년 6월호 리아호나(포르투갈어)에 실린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훌륭한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폴 헬름 형제님의 모범은 훌륭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를 용서한 훌륭한 행동에 대해 읽었을 때,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저의 간증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펠프스 형제님이 쓴 찬송가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랑과 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넬리 에이 씨 엘 드 모라에스,  
아로카리아 워드,  
쿠리티바 브라질 러즈 스테이크





#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39)

**막** 게 개인 여름날 현대의 무료 고속 도로를 달리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달리 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웅대한 산들의 장관과 바다의 매혹적인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할 때는 산과 바다는 볼 새도 없이 앞의 차에만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차량 행렬을 헤쳐 나가는 동안 자동차의 빛나는 크롬 범퍼에 부착된 스티커의 글자를 예의 관심 있게 읽은 것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경적을 울리시오."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들 무제한 운전자의 경솔하고 예의 없는 행동에 기분이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경적이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합당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 구세주의 사랑

캐묻기 좋아하는 율법사가 대담하게도 주님께 나아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



# 을님수 를함서 를행서

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참되고 지속적인 사랑을 매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22:3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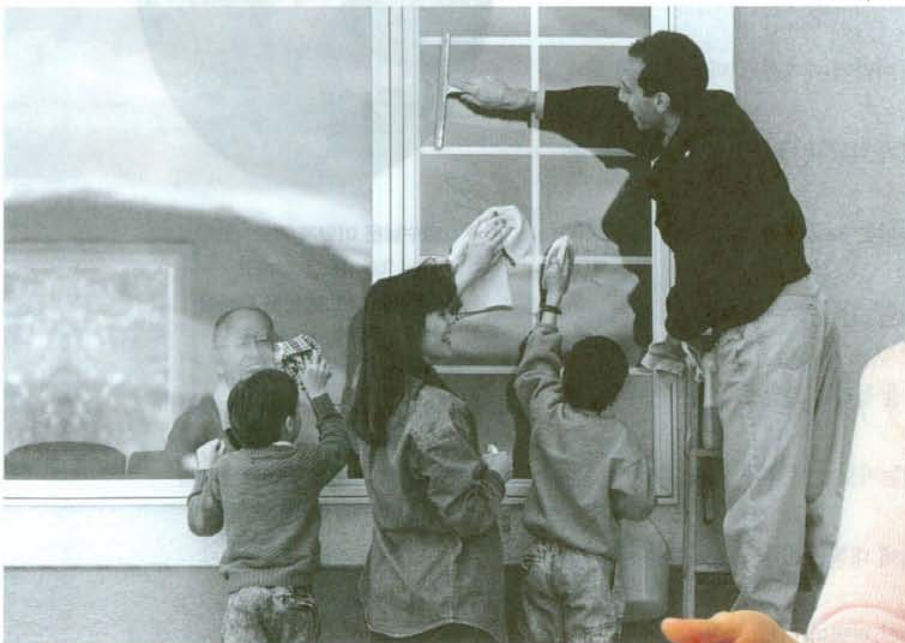
마가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31)는 구

세주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흠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의 행동이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삶을 사시고,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만하지 않으셨으며, 교만으로 뽐낸 적이 없었으며 불충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며 진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영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 악마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밤낮으로 40일 간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굶주

사진 촬영: 제드 클리크와 론진 론지니 아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하는 도전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생활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생활하며 봉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병자를 축복하시고, 맹인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셨으며, 귀머거리에게 듣게 하시고, 절름발이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므로써 자비를 가르치셨다. 그분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렸을지라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장 유혹적인 제안을 하였을 때에도 그분은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의 거룩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마태복음 4:1~11 참조)

예수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병자를 축복하시고, 맹인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셨으며, 귀머거리에게 듣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심으로써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므로써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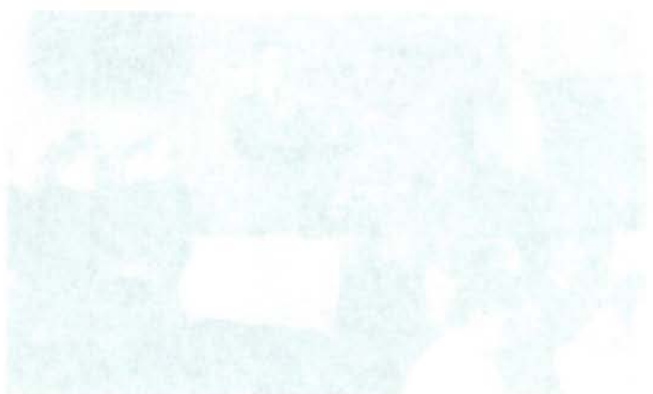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잘 알려진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 우리의 사랑을 보임

감사함을 보이기 위해 우리도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까? 그렇게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도시 멜버른에는 역사적인 전쟁 기념관이 인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기념관의 조용한 복도를 지나노라면 숭고한 희생을 바친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위와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기록해 둔 대리석 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대포 소리, 로켓포 소리와 부상병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와 함께 승리의 통쾌함과 패배의 절망을 느낄 수도 있었



습니다.

본관의 중앙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념관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서 비치는 자연광으로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두드러지게 돋보였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하는 도전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생활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생활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 범퍼에 부착된 스티커에 적힌 기발한 문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15, 21)

수년 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중 가요 가사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기는 쉬워요, 진실이라 말하기는 쉬워요, 간단히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내게 보여 주세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공과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하나요” 라는 제목의 시가 생각납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어린 준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할 일을 잊은 채 모자를 쓰고는  
그네 타러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과 나무를 날라야 했지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예쁜 벨이 말했어요.  
“말할 수 없이 엄마를 사랑해요.”  
그러고는 한 나절이나 토라져 엄마를 졸랐어요.  
벨이 나가자 엄마는 살 것 같았어요.





어떻게와 왜를 이해하려면 그곳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을 알아야 한다. 수적으로는 5,000 명도 채 안 되지만 활동 수준은 전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어린 팬이 말했어요.  
 “오늘은 엄마를 열심히 도와 드릴게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라 잘 되었어요.”  
 팬은 요람을 흔들어 아기를 잠재웠어요.

그러고는 살며시 걸어가서 비를 가져 와  
 마루를 쓸고 방을 치웠어요.  
 온 종일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아이 못지 않게 돕기도 하고 행복했지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모두들 또다시 말했어요.  
 세 어린이는 잠자려 갔어요.  
 엄마는 누가 엄마를 사랑한다 생각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조이 엘리스, 말일성도의 애송시, 잭 엠 라이언 편[1996년],  
 217~218쪽)

세월이 가면 어린 시절도 흘러가지만 진리는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를 오늘의 진리로 바꾸어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마음속의 확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 헌납 기도

오늘날 동독의 역사적인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가파르지 않은 언덕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실한 성도들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헌납식 때 각국 기자들은 프라이베르그 성전의 특이한 구조에 관심을 모았다. 이것은 특히 공식적인 일반 공개 기간에 두드러졌다. 당시 89,872 명이 성전을 방문했다.

지금부터 오래 전인 1975년 4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나는 드레스덴과 마이센 사이에 있는 노출된 바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엘베 강변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속삭임에 따라 그 땅과 그곳의 국민들을 위해 헌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회원들의 신앙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한 많은 회원들의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이 땅에 사는 당신의 교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계곡 아래에 있는 교회 탑에서 종소리가 났으며, 수탉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새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으나 내 얼굴과 손과 팔에 닿는 햇빛에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침 내내 비가 즐기차게 쏟아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두터운 구름속 트인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부 당국과의 완전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그의 두 보좌들은 기쁘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성전이 계획되고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기공식과 함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납식 때 각국 기자들은 성전의 특이한 구조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왜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공식적인 일반 공개 기간에 두드러졌습니다. 그 당시 무려 89,872명이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간간히 내리는 빗속에서 기다리는 행렬이 세 시간 동안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 사랑의 모범

헌납식 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이 헌납 기도를 했으며, 찬송가와 진리에 대한 간증과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어떻게와 왜를 이해하려면 그곳과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수적으로는 5,000명도 채 안 되지만 활동 수준은 전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았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곳에 여러 개의 가르칠 방과 푸른 잔디밭과 꽃들이 피어 있는 뜰을 갖춘 넓은 예배당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개인 서재뿐 아니라 집회소 자료실에는 표준 경전과 찬송가 그리고 한두 권의 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은 책장에 꽂혀 있지도 않았습니니다. 그 책들의 가르침은 회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상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마흔 두 살인 지부장은 21년 동안-그때까지 살아온 생애의 절반 동안 자신의 부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것도 한 마디 불평 없이 오로지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라이프찌히에서는 어느 추운 겨울날 집회소 난로의 불이 꺼졌으나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불기 없는 건물의 냉기 속에서도 회원들은 코트를 입고 어깨를 서로 맞대고 앉아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예배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날 따르라",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 에 응답해 주시리라."(테살로니가후서 3:13; 마태복음 4:19; 교리와 성약 112:10)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고린도전서 8:3)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 이 충실한 회원들이 가진 사랑은 바로 그들의 생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문경에 나오는 야렛의 동생이 보여준 사랑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며 공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보류되지 않았습니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습니니다. 지금은 영원한 의식이 집행되고 있으며 영원한 성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금 그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음의 예언적인 말씀은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리와 성약 76:1~3, 5~6)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크나큰 상을 받고 이 영원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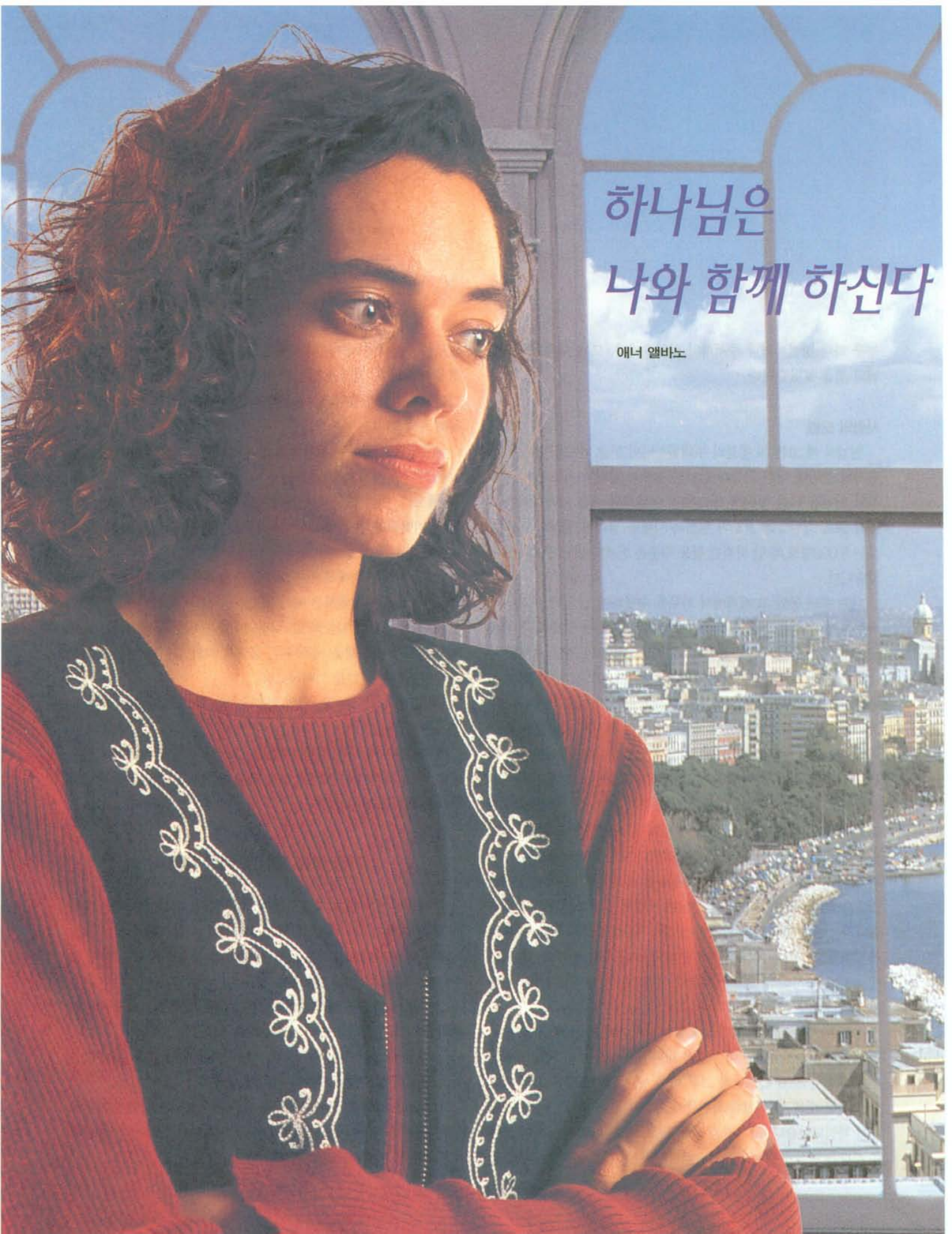
1.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2.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한복음 14:21)

3.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독에 살았던 충실한 성도들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

4.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교리와 성약 76:5)



A woman with dark, curly hair is looking out of a large window. She is wearing a red ribbed sweater under a dark vest with white floral embroidery. The window shows a cityscape with a harbor and a large bridg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애너 엘바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디슨, 모델이 포즈를 취함

시험을 보는 날 아침, 서둘러 책가방을 챙겼다. 내 책, 내 안경, 그리고 참된 내 몰몬경 등 어느것도 잊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있었는데, 대학교 건물이 눈에 띄자마자 그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다.

시간이 일러, 교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다렸다. 모두들 잡담을 나누고 있었으나, 나는 너무 두려워서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이 시험은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학교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친지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이 구술 시험을 꼭 통과해야 했지만, 불안이 밀려와 공부한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심지어는 미소도 지을 수 없었다.

나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나폴리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다. 광대한 하늘에 폭 빠져 있던 그 몇 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안이 스며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는 동안, 나는 가방에서 몰몬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경전을 읽는 동안 많은 위안을 받았으며, 어느새 주변 상황을 잠시나마 잊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어. 교수님

의 질문에 대답도 못할텐데. 그냥 여기서 나가버려. 다음달에 시험 보면 되잖아.”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후회스러웠다. 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꾸 그 생각이 깊어졌으며, 시험을 잘 치르시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몰몬경을 그만 읽고 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평안을 느꼈던 기억이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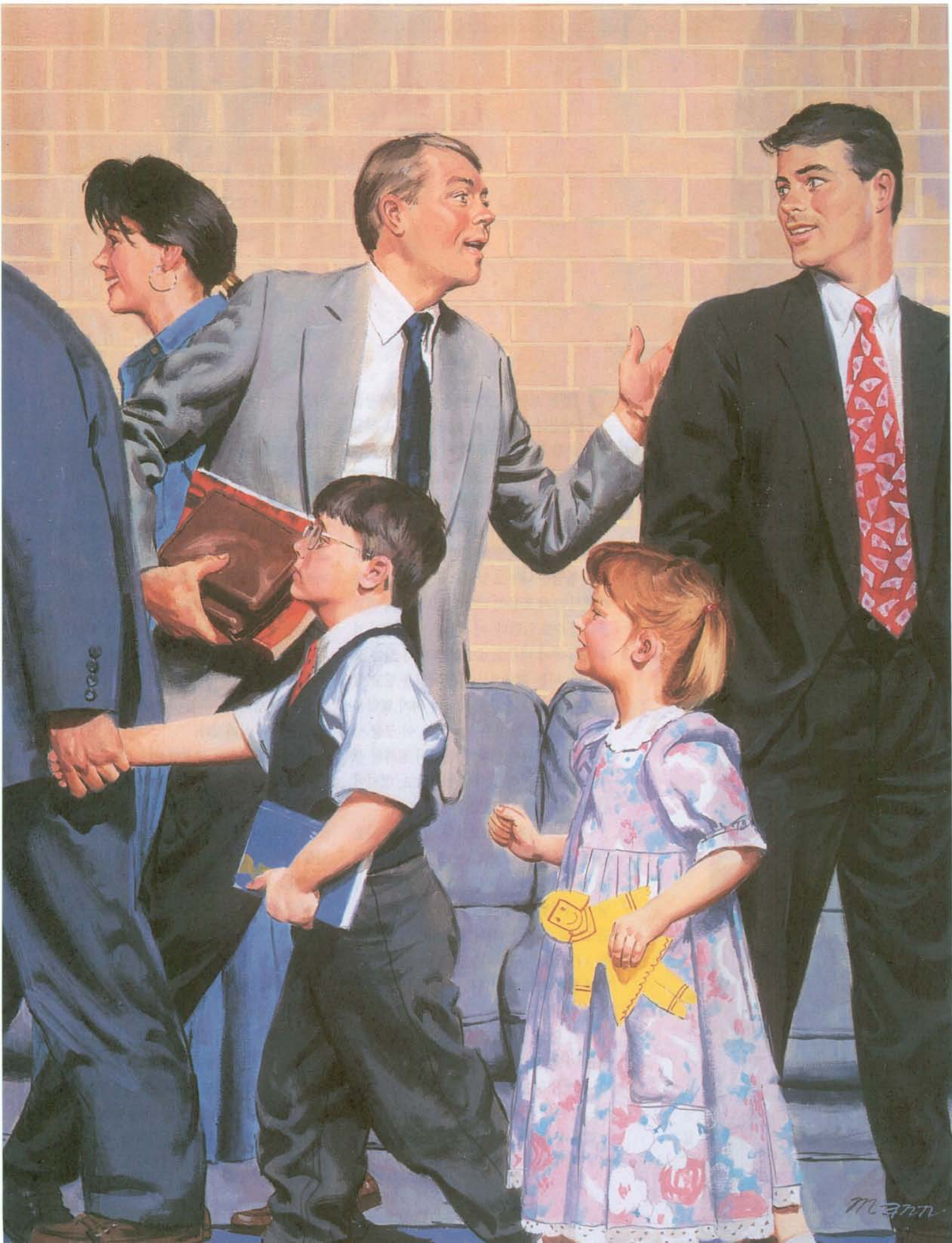
이번에는 기쁨이 넘쳤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하늘에서 주시는 따스한 확신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졌다.

마침내 교수님이 도착하셨다. 내 차례가 되어서 교수실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몹시 불안했지만, 나를 때에는 환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점수를 받았다.

낙담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탄은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 주셨다.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







# 와드 가족의 일원이 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모두가 와드나 지부에서 기쁘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한다면,  
서로 보살피고 우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합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 회원들에게 주는 진실의 메시지는 결혼 여부나 그 외 다른 상황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관련된 의식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지만, 복음과 교리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20여 년 전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저는 교회의 독신 성인들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독신 성인 형제 자매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수한 상황과 감정, 축복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몇몇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혼자만의 세계에 구속하여 비통함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며,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영에 밝은 빛을 선사하는 독신 성인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

정을 통해 즐거워하는 독신 성인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고, 희망하는 바들을 찾지 못함으로써 겪고 있는 고통과 좌절을 토로하는 독신 성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총관리 역원들이 자신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또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돌보시느니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거나 모두 다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저항 등에 부딪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도 지상 생활의 현실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니파이서 2:11)

우리는 모두 침례에 따르는 큰 축복을 이해함으로써 위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었든 나이 들었든, 구원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수만큼이나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성공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배척 당하게 하는 상황이나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때때로 독신 회원들은 자신의 와드나 지부

손을 뻗어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외로움이나 불안 전함 같은 감정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희망과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우리의 크고 큰 사랑

5. 7월 12일

가 주로 가족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와드”나 “가족 지부”로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성인들과 청소년 및 어린이-형제 자매 개개인-로 구성되어 서로 돌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와드 가족” 또는 “지부 가족”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며 어떠한 조건이나 범주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의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들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와드 가족으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내재해 있을 수 있는 그 차이점들 때문에 스스로 좋은 기회를 차단시키고 벽을 쌓아서 안됩니다. 그보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나누고, 희망과 기쁨의 빛을 전하며, 서로의 영을 더욱 높여 주어야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저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부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저의 나이는 모두 60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도, 유아기 때나 청년기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영향만큼은 받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부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장성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신이라는 사실도 인생에서의 발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사실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부모 없는 사람과 같은 상태에 빠져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진해서 유배 생활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와드나 지부 가족의 대열에 합류하여 자신

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에도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와드나 지부에서 기쁘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한다면, 서로 보살피고 우정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합니다.

1, 2년 전에 우리는 온 가족이 농장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손자 아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후에 그 손자 아이는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저 심심해요”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택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제 아내)는, 며칠 동안 손자를 재미있게 해 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이 상황을 활용하는 지혜로움을 보여 주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손자에게 빗자루를 건네주며 일하는 것을 돕도록 했고, 그런 다음 연필과 종이 한 장을 주며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에 붙여 놓은 가족 활동 목록을 가리키고는 그 목록 중에서 직접 참여하고 싶은 활동들을 적게 했습니다. 아이가 쓴 내용은 길었습니다. 아내는 손자 아이에게 혼자서 해내고 싶은 일들을 더 추가하게 했습니다. 목록은 더 길어졌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기에 충분한 흥미로운 활동 목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목록을 손에 쥐고 손자 아이는 행복하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처럼 지루해 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손자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랑으로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개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처럼 우리도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함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안을 줄 때, 구세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랑과 위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에 대한 각자의 목록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록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 [리라]”(시편 55:22)

- 경전을 상고함
- 감독님, 장로정원회 회장이나 상호부조회 회장과 의 방문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 줌

그 목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언자 리하이를 통해서 구세주께서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이서 2:25)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이나 다음해를 기다리거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혹은 장막을 지나 영원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이고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마음속의 은밀한 방에서 영원히 안주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주하게 되면, 악마의 검은 영향력에 이끌려 궁극적으로 낙심과 고독과 좌절에 빠지거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민감한 영적 교감력을 도대시키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 결국 영감을 받고 느끼며 하늘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저버립니다.

스스로도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 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해의 왕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돌리는 것

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특별한 점은 지리적 구분에 따라 와드와 지부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조직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회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회원들을 잘 파악하여 도움을 더 잘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으로 구분된 단위 조직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회원들은 예배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권 지도자나 상호부조회 회장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37:9)라는 가르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생활하지만 이 생에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맺고 순종할 때 부여되는 축복과 승영,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 마음의 소망과 의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고 순종하며 헌신적인 교회의 독신 성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특별한 상황이나 범주에 빠지지 않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구세주의 모든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사회 안에서 개인적인 능력과 재능을 모두 바칠 수 있는 와드 혹은 지부 가족의 일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고 자신을 괴롭힌 자들을 용서하셨던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돌보는 데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뻗어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외로움과 불완전함 같은 감정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희망과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사와 재능과 영을 나눌 수 있을 때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안을 줄 때 구세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랑과 위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물론 메시지

# 지도자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므로, 여러분은 그 길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니파이 이서 31:10~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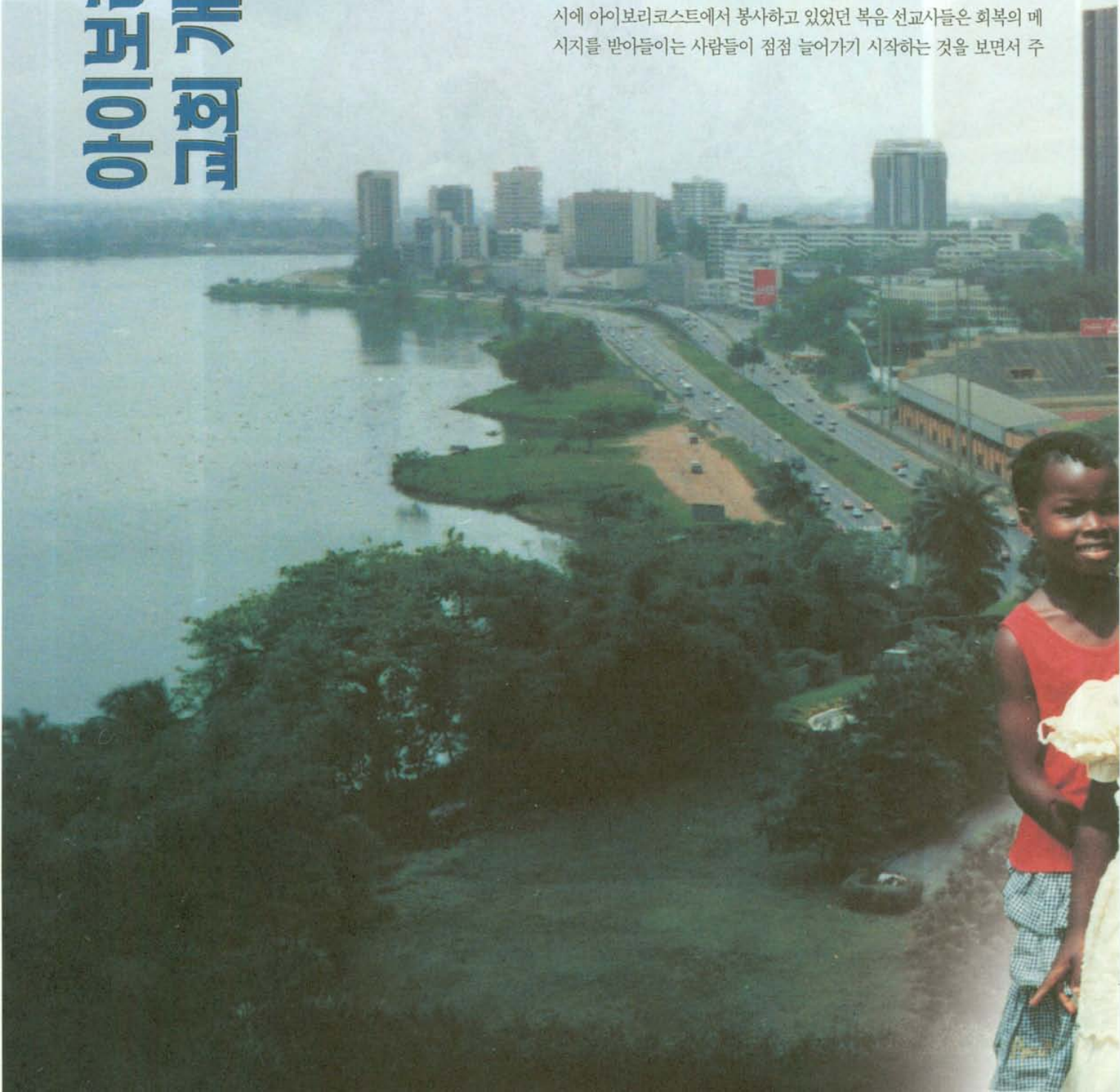
# 아이보리코스트의 교회 개척자들

아이보리코스트(코트디부아르)의 교회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희생과 인내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야기이다.

로버트 엘 머서

사진 촬영: 로버트 엘 머서와 파레스 호만

**십**이사도 정원희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는 1992년에 아프리카를 찾았을 때 "주님의 영이 아프리카 대륙을 덮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선교부장 대회, 케냐 나이로비, 1992년 11월 10~11일) 당시에 아이보리코스트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복음 선교사들은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주





님의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충실하고 합당한 남자라면 누구나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1978년의 계시는 아프리카의 일부 영어권 나라에서 그랬던 것과는 반대로 아이보리코스트에서는 즉시 눈에 띄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된 교회의 출판물이 가나와 나이지리아에 흘러 들어가자 그곳 사람들은 이를 읽고 선교사들을 보내 달라고 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음은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라이베리아와 가나 사이에 위치한 생디브에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아이보리코스트의 초기 교회 회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겪으며 근면과 인내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구세주를 믿는 신앙과 구세주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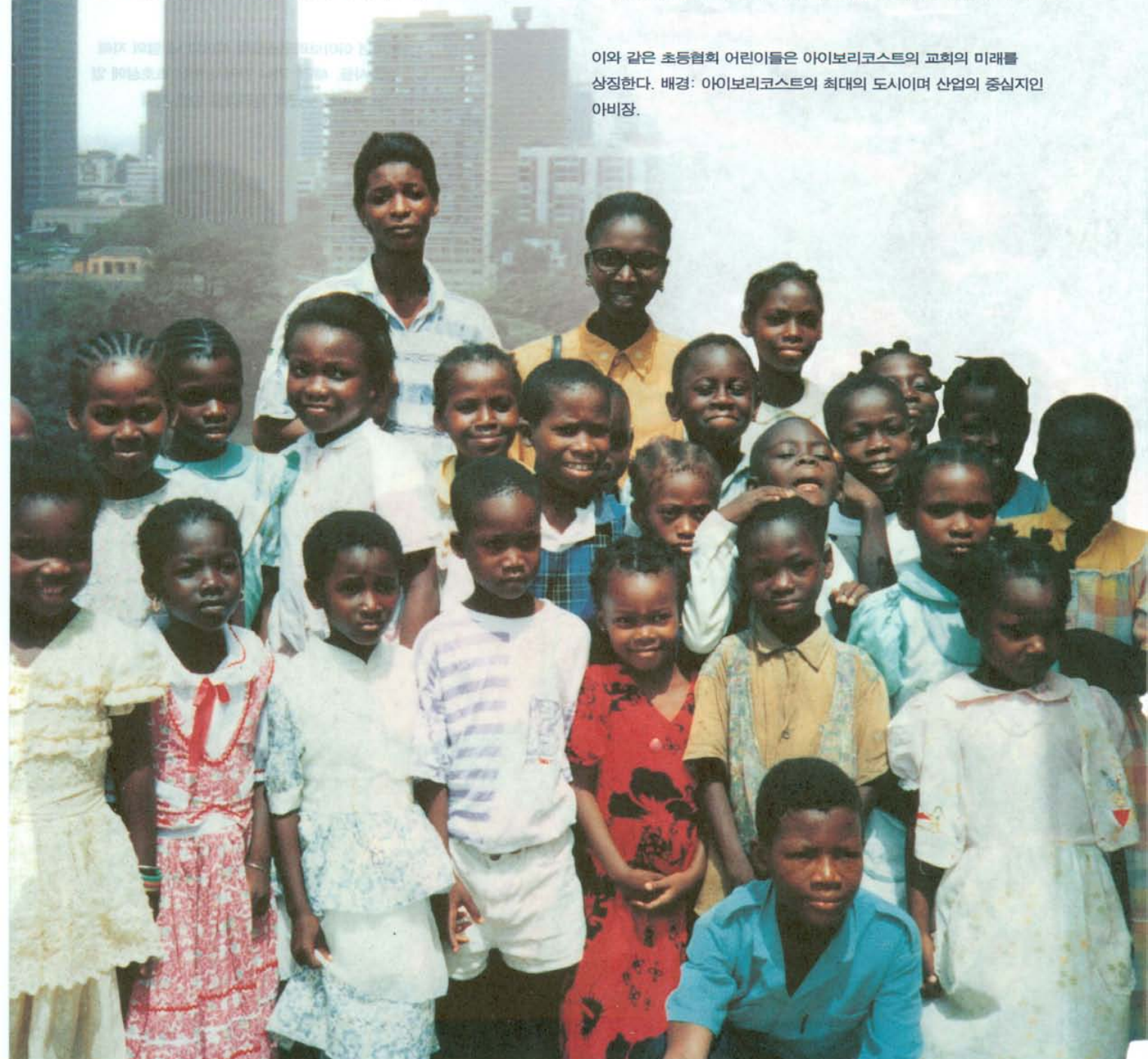
### 필립과 아넬리에스 아사드

재산이 있는 아이보리코스트 사람들은 대개 유럽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럽에서 복음을 알게 된 아이보리코스트 출신 학생들이 꽤 많았다. 말일성도가 된 이 학생들은 고국에 돌아온 뒤 복음의 정착과 발전을 도왔다.

이들 가운데 필립 아사드라고 하는 회원이 있었다. 필립은 1971년에 독일로 가서 공대를 다녔는데,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를 하던 중 무도회에서 아넬리스 마르티타라는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무도회가 열린 곳은 바로 여자 친구의 고향인 램샤이드였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했고, 필립은 직장을 구해 새살림을 시작했다.

1980년에 두 사람의 복음 선교사가 그들을 방문하여 회복의

이와 같은 초동협회 어린이들은 아이보리코스트의 교회의 미래를 상징한다. 배경: 아이보리코스트의 최대의 도시이며 산업의 중심지인 아비장.





### 3세대 스웨덴교회 45년

1948년 12월 12일, 스웨덴교회 45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교우와 함께 축하를 받으려 합니다. 이 기회를  
다들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웨덴교회  
45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합니다.

8월 12일, 스웨덴교회 45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교우와 함께 축하를 받으려 합니다. 이 기회를  
다들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웨덴교회  
45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합니다.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아사드 부부는 즉시 복음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은 뒤 아사드 형제는 "저희는 주께  
하지 못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필립과 아넬  
리스는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 받았다. 필립은 새 일자리를 구했

1993년 아이보리코스트의 최초의 네 명의 자매  
선교사들, 배경: 기니 만에서 뿜은 초호상에 있  
는 아비장 부근에 자리잡은 농촌 지역







우 사드와 아포우 가족을 비롯한 현지 회원들의 최초의 집회

는데, 그곳에서 받는 수입은 아들 알렉산더 조셉과 딸 도로스 앤을 포함하여 늘어난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했다.

독일에서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고 편한 생활을 누렸지만 아사드 형제는 고국인 아이보리코스트에 이끄러기 시작했다. 자신의 고국이 발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 복음을 소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로 결심했다. 기술자를 구하는 아이보리코스트의 회사에 지원했으나 불합격되고 말았다. 하지만 1984년에 아사드 형제는 휴가를 얻어 고국에 돌아가 일자리를 직접 찾기로 했다. 그가 지원한 회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 봤으나 얻을 수가 없었다.

“저는 쾰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반드시 아이보리코스트에 전해져야 한다는 꿈이 있었기에 주님을 믿는 신앙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1986년에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 후 제가 그 동안 받은 축복에 대해 보상하고 저의 가족과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보리코스트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라며, 아사드 형제는 그 때의 일을 회상한다.

독일을 떠나기에 앞서 아사드 부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스위스 성전을 방문하고 프랑크푸르트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유럽 지역 회장단의 일원이며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조셉 비 워스런 장로와 역시 회장단의 일원이며 칠십인 명예 회원인 러셀 시 테일러 장로를 만났다. 아이보리코스트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을 설명하고 나서 그의 가족은 회장단으로부터 축복과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워스런 장로는 몇 명 안 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아이보리코스트 회원들의 명단을 주었다.

아사드 형제는 직장을 그만 둔 뒤 집과 가재 도구를 모두 팔았다. 이듬해 1986년 4월 10일에 아사드 부부는 고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최대의 도시이며 산업의 중심지인 아비장 인근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아사드 자매나 아이들은 불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르와 도로스는 학교에 등록했으며, 아사드 자매는 친척에게서 불어를 배우고 아사드 형제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사드 형제는 1년 내내 직장을 구하려 다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그를 짓눌렀다. 직장을 구하는 일이 몹시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업을 중단한 적은 없었다. 아사드 형제와 자매는 독일에서 받은 명단에 적힌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비장에 거주하는 루시엔 아포우 가족이 제일 먼저 회신을 보내 왔다. 두 가족은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다른 회원들도 회신을 보내 왔지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아사드 형제는 1987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와 칠십인의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가 방문하기 전까지 지부를 이끌었으며, 이 지부는 나날이 발전해 갔다.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의 직원인 테리 브로드헤드가 초대 지부장으로, 아사드 형제는 보조로 성별되었다. 애쉬튼 장로가 1987년 9월에 그 곳을 복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했을 당시의 회원 수는 16명이었다.

아사드 형제는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최초의 현지인 지부장이 되었다. 그는 지방부장으로도 봉사 했으며, 아사드 자매는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과 청년 회장, 그리고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을 역임했다. 아사드 자매의 음악적 재능은 사람들이 교회 찬송가를 배우는데 매우 소중하게 쓰였다.

영적인 축복에 이어 세상적인 축복도 뒤따랐다. 아사드 형제가 아비장에 소재한 유럽계 자동차 제조 회사에 취직이 된 것이다. 그가 공과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고 불어와 독어를 잘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최적임자였던 것이다. 현재 그는 이 회사의 기술 담당 부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사드 부부는 그들이 받은 축복과 그들을 아이보리코스트로 돌아오게 인도해 준 영향력에 끝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 아사드 지방부장은 복음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영향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1997년 8월 17일에 아이보리코스트 아버지장 스테이크가 설립되고 아사드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이 되면서 부분적이거나 그의 꿈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아사드 자매는 눈물을 글썽이고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면서 그녀가 택한 나라에 최초의 스테이크가 세워진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1년 동안 이 날을 위해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 루시엔과 아가테 아포우

루시에 아포우가 산업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갔을 때 그가 받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영적인 것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루시엔과 아내인 아가테와 두 딸은 1980년 복음 선교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얼마 후 복음을 받아들였다. 불데 지부는 이 가족이 교회에 입교한 것을 환영했다. 신앙 생활의 합당성이 확인된 후 아포우 부부와 딸들은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회원들이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열린 최초의 교회 청년 대회에서 다과를 즐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1984년에 찻먹이 아들을 데리고 아이보리코스트로 돌아왔을 때 교회 회원들을 찾지 못해 실망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집에서 꾸준히 집회를 열어 다른 말일성도 가족을 만나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다. 1964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드물며,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 나라의 실업률은 무려 80퍼센트나 되었으며 국민 대부분이 작은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지만 아포우 부부는 1986년 아사드 부부로부터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두 가정은 곧 아사드의 집 뒤뜰에서 합동으로 주일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두 가정은 함께 일하며 예배를 보고 직장을 구하도록 도와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아포우 자매와 아사드 자매는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아포우 부부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아포우 형제는 아버지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37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악에서 교사







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낯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회원들과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아포우 부부는 강한 간증과 신앙이 있었기에 1988년, 부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으며 마침내 그 지역에 배치된 부부 선교사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포우 형제는 4년 간 지부장을 지낸 다음, 지부가 분리되었지만 계속하여 지부장을 맡았다. 현재 그는 선교부장의 보좌를 역임하고 있고, 아포우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아이들은 공과반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작은 지부를 돕고 있다.

### 아돌프 만데 구프

1992년 7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선교부장이 파견되고 1993년에 새로운 선교부가 설립될 때까지, 이 나라의 선교 사업은 가나의 아크라에 주재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새로운 선교부는 1993년 5월에 선교 본부가 아버지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카메룬 야오운데 선교부로 불리다가 후에 아이보리코스트 아버지장 선교부가 되었다.) 초기의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크게 증가했다.

1989년에 가나의 부부 선교사인 로버트 엠 워커 장로와 롤라 워커 자매가 아이보리코스트로 전근되었다. 그들은 불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통역사를 채용하고 그 지역에 사는 미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워커 부부는 약간 두렵긴 했지만 신앙이 있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였다. 아버지장에서 교회 집회를 가질 때 처음 얼마 동안 워커 부부는 성령이 도와 주는 한도 내에서만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집회에서 한 청년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고 싶는데 괜찮겠느냐고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이름이 아돌프 만데 구프라고 하는 이 청년은 워커 장로가 아이보리코스트에서 14개월 동안 채용하여 가르치고 침례를 준 네 명의 통역사 중 첫번째 사람이



아돌프 만데 구프

었다.

아돌프는 침례를 받기 전에 공과와 믿음을 번역하고 통역하면서 복음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워커 부부를 위해 통역을 하면서 그는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 그는 물론경을 3일 만에 독파했다. 물론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성신이 힘있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물론경은 두 분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가족은 복음과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라고 구프 형제는 워커 부부에게 말했다.

구프 형제와 자매는 네 명의 자녀와 함께 1988년에 침례를 받은 이후 착실한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는 지부장이 되었다가 아이보리코스트에 소재한 교회 교육 기구의 초대 교사가 되었다. 현재 그는 교회 교육 기구의 지역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구프 자매는 지방부 청녀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름에서 봉사했다.

### 마마도우와 조세핀 자디

아이보리코스트의 수많은 초기 회원들은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국경 수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마마도우 자디만큼 모범적인 변화를 전해 주는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이다.

자디 형제가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에 이상이 생겨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축한 돈으로 술집을 개업하기로 했다. 그는 좋은 장소에 있는 가게를 사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곧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만 해도 그의 아내인 조세핀이 복음 선교사를 만난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조세핀은 선교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았지만, 아이보리코스트의 관습상 선교사와 토론 과정을 공부하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는 승낙을 했지만 자신은 교회와 아무 인연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택한 삶은 복음의 가르침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핀은 나날이 커져 가는 복음의 지식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다. 마마도우 자디 형제는 자신의 생활에 성신의 영향력이 스며들어와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바로 아내의 열렬한 기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역시 얼마 안 가서 큰 감명을 받아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건강이 매우 좋아지자 그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디 가족이 침례를 받자 두 사람에 의해서만은 아니지만 회원수가 늘어나 부부가 열여덟 쌍이 되었다. 자디 가족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 이들과 조카는 복음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자디 형제는 술집을 그만두고 술집 건물을 교회의 집회를 위해 내놓았다. 자디 형제는 연금과 임대 소득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와 자디 자매는 많은 시간을 내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자디 형제는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자디 자매는 도쿠이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크리스토프 음보모

인구가 약 1,400만 명쯤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아이보리코스트에는 아프리카 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크리스토프 음보모는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카메룬에서 장학생으로 가톨릭 신학교에 입

학하는 특전을 받게 되었다. 그는 졸업한 후 아이보리코스트에서 가톨릭 신학교 교사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카메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 오는 여러 가지 지역 종교를 믿었다. 아이보리코스트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30퍼센트 정도 된다.

크리스토프는 아비장에 도착한 후 수많은 청년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친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청년들이 교회의 복음 선교사 부름을 받자 그는 점차로 이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크리스토프는 새로운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따져 묻기로 했다.

“원래 그는 교회가 그릇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남편인 테론과 아비장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그레



마마도우 자디

엘라네와 알라인 타노에(앞쪽)와 같은 부부는 지도자의 부름에 봉사하여 교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배경: 침례를 받게 되는 개종자들





이스 맥케이 자매는 회고한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질문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케이 장로와 자매를 방문하면서 크리스토프는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들었다. 구원의 계획이 아름답고 참되다는 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또한 속죄의 의미를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특전으로 가톨릭 신학교의 전임 교사

로 있게 되었지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했다. 내가 교회를 알고 새로 찾은 신앙 생활을 한 지 일년 만에 그 교사직을 사임했다. 그로 인해 9년 간의 임기에 따르는 모든 특전과 다른 혜택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음보모 형제는 일기에 적었다.





뒤이어 몰아친 어려움은 음보모 형제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는 저와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와 저의 전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친구가 저의 아름다운 차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으나 주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1993년 7월, 음보모 형제는 선교부장단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그는 분별 있게 봉사를 잘해냈으며 계속되는 어려움도 잘 이겨냈다. 그러나 새로운 교사직을 구하면서 그의 인내는 빛을 보게 되었다.

음보모 형제는 지상에서 겪는 시련은 하늘에서 받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며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구세주와 복음에 대해 감사를 느끼는 마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구세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 길고도 참을성 있는 기다림

1992년에 들어서면서 아이보리코스트의 회원수가 거의 1,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교회의 회원 수는 배 이상 늘어 2,500명이 되었다. 현재 교회 회원 수는 약 3,500명 정도이며, 스테이크 한 개와 아비장, 보악, 및 이 나라의 수도인 아마우소크로 등에 11개의 와드와 4개의 지부가 있다. 이 밖에 다른 여러 도시에서 회원들이 단체로 집회를 갖고 있다.

이 나라가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된 지 10년만이며,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기 얼마 전인 1977년 4월에 아이



크리스토프 음보모

보리코스트에서 최초의 예배당이 헌납되었다. 자신의 예배당을 가지게 된 일은 아포우와 아사드를 비롯한 아이보리의 말일성도들에게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두 가족이 11년 전에 고향 마을의 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난 이후부터 고국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갈망해 왔던 것이다.

이 아프리카인들이 구하고자 했던 최선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된 복음에서 발견되었다. 생디브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의 밝은 미래는 현실이 되고 있다. □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 스테이크 아보보 와드의 청년들





# 온전하게 생활하여 영생을 준비함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는 생을 더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왔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 85쪽)

시련은 인생의 기본적인 경험중에 하나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지식을 키워 줍니다. 우리가 복음 원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시련의 목적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목적을 갖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즐기거나 계속해서 쾌락을 좇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험 받고 자신을 증명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갖고 계신,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25쪽)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플로렌스 추쿠라의 삶에 나타나 있듯이, 시련은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하는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추쿠라 자매는 어려서부터 가족의 경제적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실하게 하

나임을 찾음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어요.”라고 회상합니다. 이 기본적인 결심 외에도 그녀는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손윗사람들에게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또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힘찬 노력과 결심을 통해 그녀는 가족을 돕고 교육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간호 및 산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소망보다도 구세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닿을 내린 가족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함께 나누었던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진리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교회를 소개 받았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현재, 추쿠라 자매는 자신이 어려움을 힘써 이겨내고자 하던 중에 주어졌던 축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밝고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죠. 그분은 저의 노력에 대해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항상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요.”(“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7쪽)

##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기쁨을 찾음

때때로 힘든 영생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여행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의 가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많이 줍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에는 쓸데없는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계획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많은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23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면서 온전하고 기쁘게 생활하기 위해 알고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





# 동기를 부여해

동기를 부여해



존 알 하우 사진 촬영: 제드 클리크와 크레이그 디어몬드

구세주께서는 청중을 가르치고 고무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양, 그리고 값진 진주와 같은 친숙한 물건들을 자주 인용하셨다. 복음 교사로서 우리도 (1) 경전을 탐구하고, (2) 반원들에게 친숙한 물체를 선택하며, (3)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훌륭한 실물 공과가 되게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유의 사항을 보면, 실물 공과는 짧고 간결하며 그 실물이 공과보다 더 중요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워드의 교사들이 더욱 효과적인 실물 공과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나는 교사 자질 향상 모임에 참석할 회원들에게 진화하여 그들의 기억에 가장 깊이 남아 있는 실물 공과를 기억해 보라고 부탁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좋았으며, 그 어느 모임보다도 훌륭하게 교사 자질 향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모임을 시작하면서, 나는 아내 로지와 함께 그 대답들을 활용하여 칠판에 거의 30개에 달하는 실물 공과 목록을 기록했다. 우리는 그 모임 시간을 모두, 그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실물 공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용했다.

예를 들어, 상호부조회 교사였던 유니스 블랙 자매는 한 달 수입을 나타내는 열 개의 사과를 가지고 공과를 가르쳤던 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 교사는 음식값으로 하나의 사과를 내고, 월세로 두 개의 사과를 내는 식으로 계속 사과를 없애 나갔으며,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 워드 감독에게 자신의 옆에서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구세주께서 자신이 아직도 지불해야 할 고지서와 청구서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달은 십일조의 일부분만을 바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 십일조로 내야 할 몫의 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문 다음에, 나머지를 감독에게 건네 주었다. 블랙 자매는 이 공과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 자매는 항상 먼저 십일조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 주는 실물 공과



집사 정원희 고문인 데이비드 바우 형제는 여러 겹의 스티로폼과 테이프로 싼 낱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집사 정원희 교사는 반원들이 그 달걀 꾸러미를 벽에 던져 보게도 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보게도 했다. 그런 다음 그 교사는 반원들에게 그 꾸러미를 다시 받아 포장을 풀 뒤 달걀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복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 복음을 통해 간증이 겹겹이 쌓여지고, 개개인이 보호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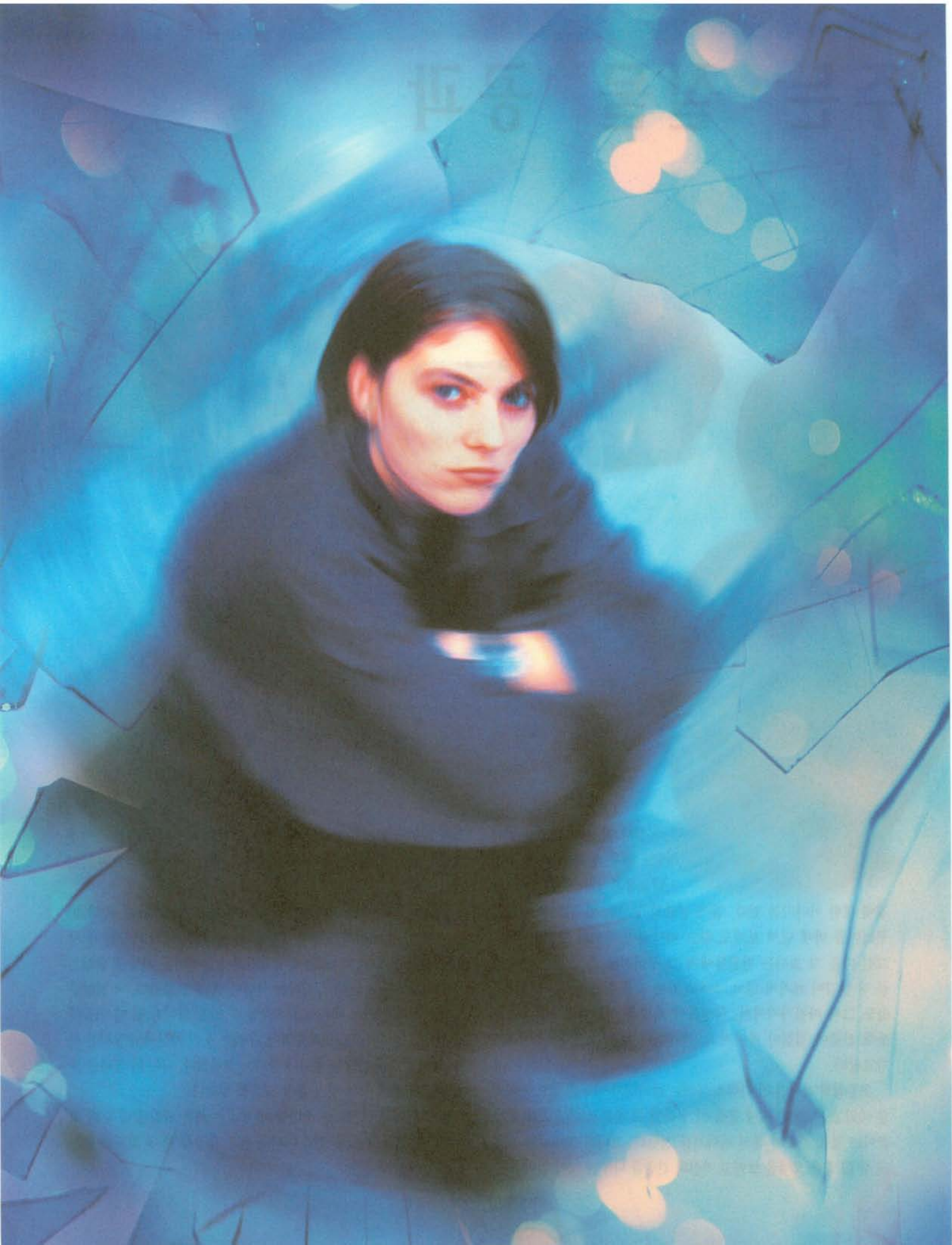
초등학교 교사인 팜 라렉스 자매는 할머니가 어두운 방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 초 한 개에 불을 켜게 하고 그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렇게 한 뒤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팜은 그 가르침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찾아볼 때마다 다시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물 공과에 관해 이야기했다. 거의 40년 전에 한 감독 보좌가 집사 신권을 가진 형제들에게 깨끗한 새 사탕을 들렸다. 그런 후 그는 만지작거리서 끈적이는 사탕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현명한 교사는 우리가 커서 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즈음에 이 공과를 기억하라고 일러주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순결해야 하며, 상대방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공과를 통해 순결에 관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받았다.

실물 공과를 영적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복음 원리를 더욱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







# 우리 자녀들이 실족할 때

존 케이 카머 장르

칠십인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는 복음 안에서 인도와 힘을 구할 수 있다.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금 실족하는 자녀들도 있다. 실족한다는 것은 악물 남용, 범죄 행위, 부도덕, 심지어는 부모나 남을 학대하는 행동 등을 뜻한다. 앞의 경우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거나, 학교를 중퇴하거나, 인생의 목적이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이럴 때 부모들은 슬픔, 실망, 좌절, 우울증, 죄책감 및 합당치 못하다는 느낌, 패배 의식 등, 전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경우, 또한 부모들은 분노하거나 의기 소침해지면서 그저 포기해 버리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도 한다. 보통 이러한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당면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쉽다.

우리 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부부 가운데

아들의 행동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모든 고통을 거의 다 겪은 부부가 있다. 그들에게는 지난 5~6년이 무시무시한 악몽의 세월이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보았다. 심지어 아들을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원에 보내보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일주일도 넘기지 못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아버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애석함과 소망을 표현했다. “우리와 같은 아들들 둔 부모들에겐 지침서 같은 게 없답니다. 오직 주님이 형제님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리고, 형제님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부부는 굳은 신앙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들 아이가 성전에서 우리에게 인봉된 이상, 영원한 성약의 결속이 현재 그 아이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듯한 사탄의 울무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궁극적 희망

(왼쪽) 사진 촬영: 에프 피 지 인터내셔널; (오른쪽) 그림: 헨시 와이즈, 용이버린 앙, 플비 대학 미술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사진은 모델들이 포즈를 취함



# 편 흡족함 | 어릴수록 | 도우

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내외는 언젠가는 그 아이가 영원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지나온 삶을 회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 간답니다.”

친구는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견디기조차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겪는 시련은 자녀들의 성장기와 연관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걱정의 고삐를 잠시도 늦출 수가 없다.

자녀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을 좀더 이해하고 도와 주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1) 가족의 일부가 겪고 있고 양쪽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2) 부모들이 그와 같은 문제 또는 그와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교리를 확인해 본다. (3) 그런 다음, 역경의 시기를 부모들이 어떻게 굳건히 견뎌 낼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 술과 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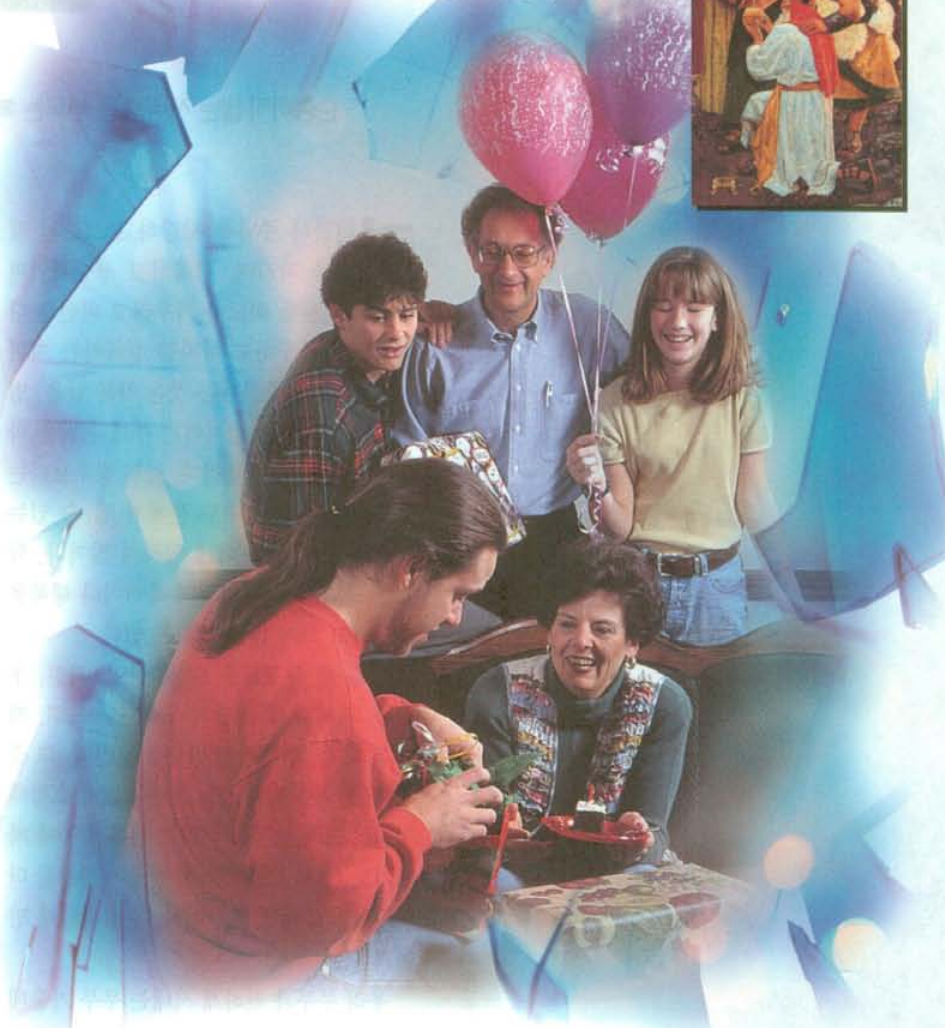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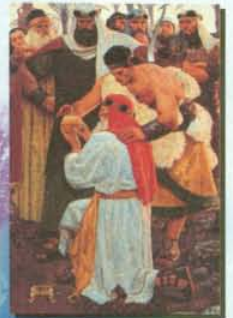
• 술. 어느 부부는 아들이 열세 살 때부터 정규적으로 술을 폭음하는 바람에 인생의 대부분을 엄청난 탄식과 고통 속에 보냈다.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일찍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아들이 고통 속에서 생을 끝마치기 직전에 한 형제가 그에게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것이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놀라우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그

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다섯 살밖에 안 됐던 어느 날 친구의 부모가 외출한 사이 그 집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맥주 한잔을 권했다고 한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음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던 그는 친구가 준 것

이 알코올 성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마시게 되면서 술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 맛이 좋았고 특히 그 효능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열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친 것과는 다른 길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힘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갑자기 탈선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것이다.

아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의 부모는 기도와 근심 속에서 아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아들은 당구장이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했다. 몇 년 동안 아들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들에게 점점 더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 때문에 슬픔을 떨쳐 버리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한 동안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사랑어린 관심에 힘입어, 술을 끊고 건전한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이 부모는 고난의 세월을 보낼 망정 한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무릎꿇고 아들을 위해 기도드렸으며, 때로는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였다. 아무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영의 속삭임 덕분에 그 아들이 마침 집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여동생을 도와서 지상에서 얼마 안 남은 생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간호했다.

• **마약.** 내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신권 지도자로 봉사할 때의 일이다. 많은 부모들이 1960년대에 패배하던 마약의 물결에 휩쓸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한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조언과 위안을 구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이 강력한 마약에 중독되어 자신과 아내가 악몽 같은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부부는 자녀를 키우면서 보통 부모들이 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때때로 저질렀을지는 모르나, 늘 자녀들에게 사랑에 찬 모범을 보여 주었고 가정에서는 의로운 복음 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아들 둘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이들 부모는 스스로를 자학했고, 특히 아버지는 자신이 신권 임무를 계속 행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그를 설득해 교회 봉사를 계속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해 주었다.

이제 나는 당시도 그랬듯이 모든 부모들과 함께, 특히 자녀들의 꿈이 허망한 잣대미로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느라 고통을 겪으며 일종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필요한 희망과 위안을 주는 관련 교리를 나누고 싶다.

#### 관련 교리

부모들 중에는 훌륭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부당하게 스스로를 비난하며 크나큰 고통에 싸인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대회보고, 1964년 4월, 5쪽; 제이 이 맥컬록, 가정: 문명의 구세주(1924년), 42쪽)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술이나 마약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실패했음에 틀림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행한 선행이나 직

접 이론 성공이 부모로서 가정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두 가지를 연결짓는다. 하지만 이 말씀의 취지가 부모들에게 자녀한테 관심을 보이거나 함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는 데 있는 이상,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 노력, 희생을 들였지만 아직까지 들인 공에 대해 원하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부모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이와 관련되는 권고의 말씀이나 교리를 좀더 살펴보는 일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 대체로 우리 생활은 기쁨과 슬픔, 쾌락과 고통,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하나의 삶의 시험장으로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분이기에, 이곳 현세에서의 삶의 여건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더구나 그분 스스로도 이런 모든 여건들을 경험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다. 이에 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지상에 사셨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년), 328쪽)

우리가 전세에 있을 때 그분이 엄중히 선택하신 아들 가운데 하나가 모반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3분의 1에게 악마의 길을 따르도록 부추겼다.

만일 여러분이 탕자의 부모로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경전에 나온 부모 가운데



데 그와 유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기억해 본다. 예를 들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라는 아들을 둔 아담과 이브, 아들 중 둘이 반역을 했던 리하이와 새라이아, 아내들과 더불어 부모로서 큰 슬픔을 겪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모범적인 인물들, 코리엔톤이라는 말쑥한 아들을 둔 엘마이세, 역시 말 안 듣는 아들을 두었던 모사야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29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이렇게 말씀한 바 있다. "제멋대로인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께서 자신의 양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기 훨씬 오래 전에, 그들은 여러분 자녀이기에 앞서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듯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의의 길에서 벗어나 무지한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지에 대해 자비를 보이십니다. 충만한 지식만이 충만한 책임감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종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끝없는 사랑에 넘치십니다. 또한 영원한 복음은 비좁고 유한한 우리 마음의 이해력보다 구원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쪽)

부모들은 수세기에 걸쳐 자녀들과 꽤나 힘든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기 위한 길을 모색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지와 도움과 안내를 받아 왔

던 것이 사실이다.

• **자유의지를 존중함.**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영원한 세계를 포함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우주에 관한 최고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자유의지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경우든 악한 경우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상의드리지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일이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셨을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선이나 악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혀 확신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생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이 아니다. 선과 악이 우리와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은 어느 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복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며, 그중의 일부는 아주 심각할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나의 백성을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 받아야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05:6) 그 길은 다른 길보다 어렵긴 하지만, 주님은 중독성이 있는 행위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인식하고 계시며, 그들이 선악에 대해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울 때 이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의역해서 설

명했다. "충실한 부모의 영원한 인봉과 진리의 대업에 있어서 용감하게 봉사한 대가로 그들에게 행해진 약속은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구원해 줄 것입니다. 양들 가운데 일부가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목자의 눈길은 그들 위에 있으며, 조만간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와 다시 양의 우리로 데려다 주는 거룩한 섭리를 촉감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생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고통을 겪으며 가시밭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마침내 그들이 참회하는 탕자와도 같이 자신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인도된다면, 쓰러졌던 경험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철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들을 꼭 붙들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과 신뢰를 가지십시오."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쪽)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그들을 강제로 주님의 틀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원하면, 교회에 머물며 복음대로 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때 제멋대로 생활했던 자녀가 성장하면, 현재의 기대치와 접근 방법에 부응하려 애써야 하는 때가 올 수 있고, 그들은 혼돈에 계속 빠져 있기보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할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서 완전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인내와 사랑 가운데 사물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원한 시각을 택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판단하는 것**







된다.

• **구세주께 의지함.** 하나님은 자유의지의 불가피한 결과에~즉 우리가 악뿐만 아니라 선을 택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범법을 한다는 사실~대해 알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도록 하셨다. 구세주는 스스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좌절감의 짐을 지셨으며,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를 회개하여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분의 속죄가 주는 병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분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 심지어는 그분이 보시기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아주 신속히 치워 주시는 일을 미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구세주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녀가 벗어나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를 찾기 위해 "아혼아훙마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한다.(누가복음 15:1~7 참조) 또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지며(누가복음 15:8~10 참조), 방탕한 생활로 우리의 소유물을 탕진한 사람까지 집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누가복음 15:1~32 참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가?

• **주님을 찾음.** 실족한 자녀들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 성격이 복잡적이고, 자녀에 따라 양상도 다르다.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거나, 우리가 처한 특수 상황에 대해 필

요한 지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게 된다.

• **영을 인식함.** 우리는 심오하고 진지한 기도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니와 그는 내 마음을 밝혀"(교리와 성약 11:12~14 참조)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자녀가 어느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영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수가 있다.

• **속삭임에 유의함.** 우리는 일단 영의 속삭임을 받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 해도 신앙이 있어야 가능할 경우가 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기꺼이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에게로 향한다면 우리는 어느때든지 자녀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 반경을 선택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역경의 시기에 개인적으로 큰 내적인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다. 경전은 소망과 평강을 약속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족한 자

녀의 부모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은 탕자에 관한 훌륭한 비유 말씀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갖고 좀더 지혜와 이해심을 발전시킨다면 대부분의 장애물을 결국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5:11~32 참조)

• **결코 포기하지 않음.** 자신의 아들딸에게 힘이 못 미칠 것같이 생각되면, 여러분은 최소한 그들을 계속 사랑해 줄 수는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뻗쳐 주고 양육하며 돕는 일은 항상 누군가는 이목을 집중하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주신 다음과 같은 권고는 어려울 때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과 단합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고집스럽고...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녀들과 말을 할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식으로 거칠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여러분은 그들을 다그쳐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 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복음 교리, 제5판(1939년), 285~286쪽)

이와 같은 스미스 대관장님의 예언인 권고의 말씀과 앞에서 언급한 교리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도와 주고 자녀를 향해 늘 마



음의 문을 활짝 열어 둔다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꼭 붙잡아 주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좀더 어릴 때 그들을 강화시키고 지지하는 가족간의 우애를

확립시켜 놓는다면, 그들이 나중에 시련과 유혹에 처했을 때 좀더 잘 도와 줄 수가 있을 것이다.

#### 부모들에게 주는 권고



실족한 자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거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필요한 지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이제 나는 실족한 자녀 때문에 겪는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본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조언과 성숙함과 도움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렇듯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될 것이다. 혼돈된 삶으로 자신을 좀먹게 해서 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적절한 행동을 합당하게 계속해 나간다.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오고 여러분의 표준과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여러분의 확신과 지혜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이야기할 때가 여러분이 피곤을 느끼는 늦은 밤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하더라도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을 때 긍정적으로 임하도록 한다.

• **도움을 구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의학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남용 및 기타 심각한 부정적인 문제들과 여건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냈다. 나는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빛나간 젊은이들을 도와 재활시킬 수 있는 최신식 기술과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 정원회 지도자들, 감독 또는 지부장과 상의하도록 한다.

•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함.**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성취에 개인적으로 기대와 희망을 지나치게 많이 거



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기뻐 하면서 부모의 기대를 너무 강조하면, 자녀들에게 부당하게 스트레스와 압력을 줄 수가 있다. 부모 자식간의 갈등은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이나 열망이 자신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 심각해진다.

• **여러분의 탕자를 지혜롭게 도와 줌.** 이따금 역경에 빠진 자녀의 생활에 여러분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의 아들딸을 바꿔 놓는 데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친한 친구, 애인, 교사, 현명한 스카우트 지도자, 세미나리 교사, 아니면 선권 지도자나 청녀 지도자 또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젊은이들은 사법부나 수사기관에서 고된 형벌을 받은 후에 자신의 선택이나 생활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결국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실족한 아들이나 딸은 자신을 돌아본 끝에 위안과 도움이 필요해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 손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후 자녀들이 새 출발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 **현실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자학을 하지 않음.** 부모들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임무를 다 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 가운데에는 자녀들이 걷고 있는 현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변명을 하

면서 증거가 현실과 다르길 소원한다. 문제의 심각성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것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더 좋다. 왜냐하면 조기 발견이야말로 문제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

이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기 연민이나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아들딸에 대한 사랑을 밀쳐 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이따금씩 실족한 아들딸은 집으로 돌아온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손으로 그들을 맞아들인 후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





# 1919년 3월 1일 행복 10부서

긴다고 느끼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은 부모 자식간의 대화에 썩기를 막는 것이 되고, 탕자에게는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된다.

자신의 성품을 온전케 하는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역량을 확대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 이처럼, 자녀들이 자신의 구원을 얻도록 돕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구원도 얻을 수 있게 된다.

• **인간의 마지막 자유를 기억함.** 빗나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고, 것처럼 많은 고통에 직면해서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엄격한 시험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그러한 부모들이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유대인 빅토르 이 프랑클을 떠올렸으면 한다. 28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 포로인 빅토르 프랑클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인간은 영적인 자유와 정신적 독립의 자취를 지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것처럼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적, 육체적 긴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빵을 주고는 임시 막사를 지나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수는 얼마 안되었던 것 같으나, 그들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하나만은 빼앗 수 없음을 증거로 남겼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은 자신이 택하는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의미를 찾는 인간(1981년), 74~75쪽)

그는 날마다 잔악하고 야만적인 행위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고귀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 부딪혔던 포로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으나 “우리가 삶에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의미를 찾는 인간, 85쪽)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실족한 자녀의 부모가 그렇듯, 수용소 포로들 또한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생존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 이러한 시험은 각 사람마다 달랐고,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그들은 내적 평화나 존엄성을 망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온당한 태도로 인해 자신들이 겪어야만 했던 일부 사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친구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과거 어느때보다 경전을 공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부모들은 실족한 자녀들이 개심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강건해질 때가 많다.

물론 대다수의 부모들이 우리가 지금껏 논의한 것과 같은 자녀 문제로 격심한 풍랑을 겪진 않았겠지만, 내가 태어난 가족을 포함해 일부는 매우 힘든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게 될 것이다. 죄책감이나 절망감에 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도움과 평안을 구해야 한다. 또한 강해지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1919년 연차 대회에서 시온의 데저렛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알론조 에이 힝클리 형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말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시온의 데저렛 스테이크 성도들에게 장담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들딸들의 얼굴을 거리낌없이 바라볼 수 있는데도, 그들 중 누가 실족했다면, 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애의 행동은 내 가르침이나 모범적인 생활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아들이나 딸이 바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쏟은 사랑과 인내와 신앙과 기도 및 헌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회개할 힘을 잃지 않은 이상, 그중 누구도 길 잃은 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19년 10월, 161쪽)

이 권고의 말씀은 위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탈매지 장로의 말씀이 이생에서 어떻게 성취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는 우리가 이생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관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데는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가능함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자녀들과 맺은 인봉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자 아니다.

나는 실족한 자녀의 모든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돕고 성스럽게 임명된 부모의 책임을 잘 이행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서 밝은 소망을 유지하길 기원한다. □



#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줄 빵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에레스

그림: 태드 알 피터슨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부에서 캐실라만차 지역의 선교사 대회가 열리기 전날이었습니다. 리차드 에이치 윈클 선교부장은 아내와 선교부장 보조인 보처트 장로 및 알렌 장로와 함께 대회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들은 대회 준비에만 몰두하면

서 일정, 연사, 찬송가, 그리고 특별 음악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을 신중히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점심 식사 준비 같은 일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들은 대회가 끝난 후 점심을 제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스물여섯 명의 선교사가 대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를 열기로 한 날은 마침 스페인의 공휴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감에 가득 찬 영적인 대회였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해 간증하는 선교사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선교부장과 원켈 자매는 점심 식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만 샌드위치를 만들 빵을 깜박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켈 선교부장은 선교사들을 굶긴 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 보조들에게 5000페스타를 주고 샌드위치용 식빵 스물여섯 개를 사러 보냈습니다.

보처트 장로와 알렌 장로가 밖으로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100페스타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거의 2년 간 스페인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로들은 돈 주인을 찾거나 돈을 돌려 줄 길이 없어서 주운 돈까지 합쳐서 5100페스타를 들고 식빵을 사러 나섰습니다.

마침 그 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문을 연 식품점이 없었습니다. 마드리드 큰 거리에 있는 여러 선물집 중 한 군데에서 빵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선물집에 들어가서 식빵 스물여섯 개를 달라고 했더니, 주인은 한 개밖에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들은 60페스타를 지불하고 식빵 한 개를 샀습니다. 나머지 돈 5040페스타를 들고 다음 선물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선물집에서도 첫번째의 선물집과 마찬가지로 식빵 한 개밖에 팔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식빵 한 개 값으로 50페스타를 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40페스타와 5000페스타의 지폐를 모두 카운터에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5000페스타짜리 지폐를 거슬러 줄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식빵 값으로 40페스타만 받았습니다.

5000페스타와 식빵 두 개를 들고 세 번째 선물집으로 가서 식

빵 스물네 개를 달라고 하고, 그들은 카운터에 5,000페스타를 내놓았습니다. 선물집 주인은 식빵 한 개밖에 팔 수 없으며 50페스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집 주인 역시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식빵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세 개의 식빵을 들고 네 번째 선물집에 들어가서 카운터에 5000페스타짜리 지폐를 놓은 다음 식빵 스물세 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 주인도 역시 식빵 한 개밖에 팔 수 없으며 50페스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식빵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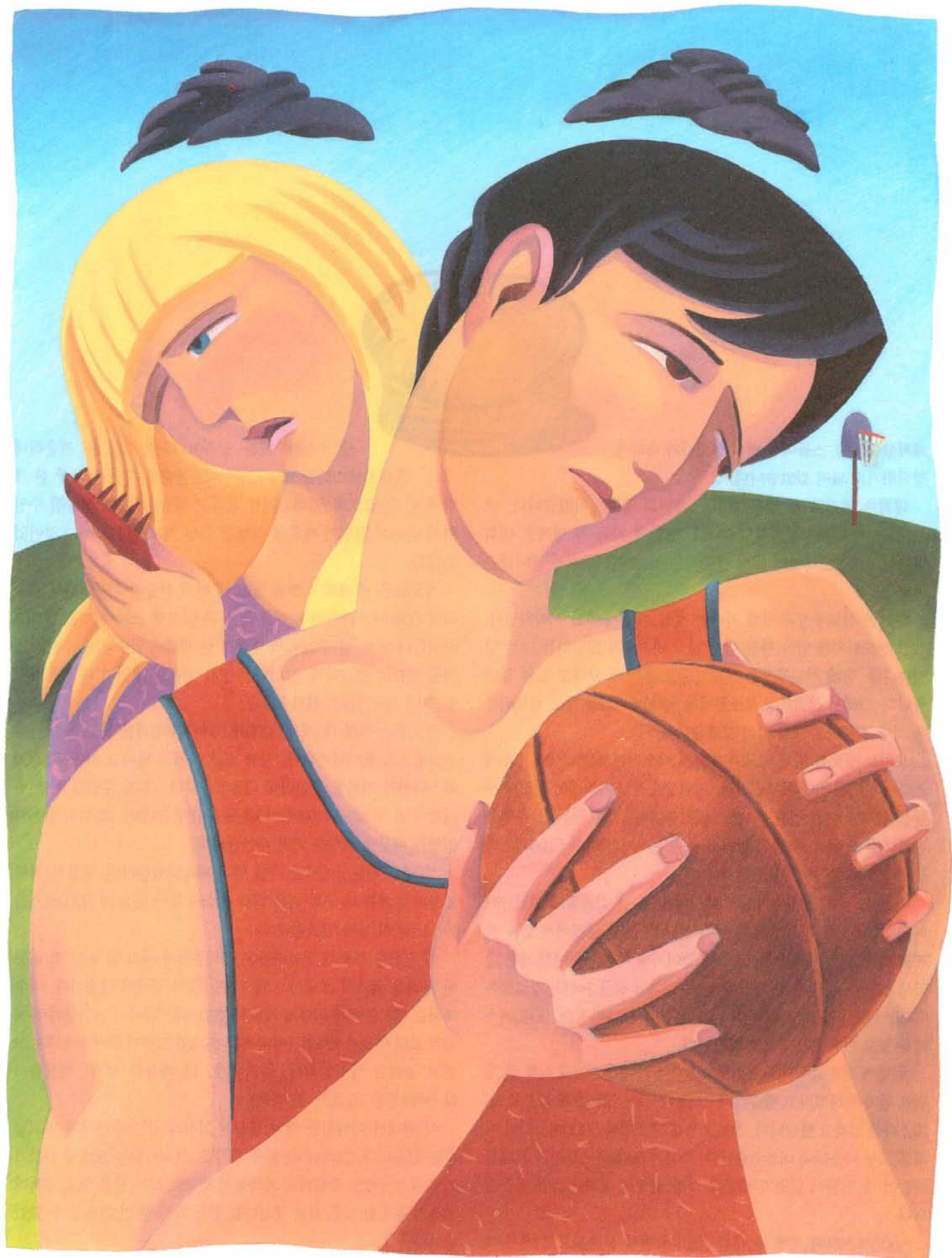
장로들은 식빵 네 개와 5000페스타짜리 지폐를 들고 다섯 번째 선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빵 스물두 개를 달라고 하면서 5000페스타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내놓았습니다. 그 집 주인도 식빵 한 개밖에 팔 수 없으며 50페스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식빵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 다음 선물집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필요한 식빵 스물여섯 개를 다 구한 다음 대회 장소에 돌아 왔을 때 5000페스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들은 구세주께서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한 무리를 굶겨서 보내시지 않으셨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마태복음 15:32)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어,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마태복음 15:32~38 참조)

이 현대판 이야기를 빵과 생선의 기적의 규모나 권세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선교사들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







# 훌륭한 성품

잭 웨이런드

그림: 딜린 마쉬



**덴**은 누구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사 정원회 고문과 대화를 할 때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야, 덴, 어서 와라! 와드 농구팀에 너의 도움이 필요해.”

“전 농구에 소질 없어요. 친구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할 수 없이 온 것뿐이에요.”

“자,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라. 네가 외곽슛을 좀 맡아 줘야겠어.”

“외곽 슛이든 골 밑 슛이든, 전혀 못하는데요.”

“그럼... 시합 때 넌 뭘 하니?”

“상대방 팀에서 나를 참 안됐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애를 썼을 뿐이에요.”라고 덴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잔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잔의 불만은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휴, 정말 지겨워. 머리로 마음에 안 들고, 왜 나는 날씬하고 키가 클 수 없을까? 그것은 너무 많은 요구일까?”

덴이나 수잔의 말이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들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비하하며 혹평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좋은 자질을 외면하고 부정적인 면만 늘어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사를 끝까지 잘 읽어 보십시오. 이 기사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쓴 것입니다. 다음에 열거한 열 가지 사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자신의 훌륭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묻고, 목록을 만들어 활용함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현세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품성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이런 부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탁을 하면 그들이 놀리지 않을까 걱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리아호나*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왜 여러분의 훌륭한 품성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기타 존경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을 오랜 기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하며 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직접 얘기하는 것을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품성에 대한 목록은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 가지 제언을 소개합니다.



# 리야호나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쩌면 여러분에게서 발견한 훌륭한 성품 몇 가지를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칭찬을 진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훌륭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입니다. 그것을 문이나 자주 여는 서랍 안에 테이프로 붙이십시오. 성품을 나열한 목록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성품 하나씩을 읽을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훌륭한 성품대로 살 수 있다." 힘들긴 하겠지만, 그대로 해보십시오.

## 2.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시킬

여러분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로서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교리와 성약 132:20 참조)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요 영광입니다. (모세서 1:39 참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점을 보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의 힘부터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으며, 여러분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가운데서 지상에 우리를 보내시려 한다는 그분의 계획을 듣고 기쁨에 넘쳐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분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그분에게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분의 참 뜻을 알도록 하십시오. 응답에 귀기울이십시오. 경전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의 말씀이야말로 훌륭한 인도자입니다.



**먼**저 기도의 힘부터 느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매우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로서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지기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십시오.

테 서서 지상에 우리를 보내시려 한다는 그분의 계획을 듣고 기쁨에 넘쳐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분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그분에게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분의 참 뜻을 알도록 하십시오. 응답에 귀기울이십시오. 경전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의 말씀이야말로 훌륭한 인도자입니다.

축복사의 축복도 도움이 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해 영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서 보고 계신 잠재력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감독님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나면, 축복문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이 자신을 축복에 합당하도록 지켜 나간다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축복사의 축복도 도움이 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해 영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서 보고 계신 잠재력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감독님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나면, 축복문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이 자신을 축복에 합당하도록 지켜 나간다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축복에 합당하도록 지켜 나간다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 3. 열심히 봉사함

구세주께서 다음의 말씀에서 봉사의 참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39)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라)" (모사이사서 2:17)

여러분이 기분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걱정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주변 사람을 언제나라도 도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



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실까요? 구세주라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4. 지금 당장 회개함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의롭게 해결한 문제에 대해 끝없이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죄는 없어집니다. 회개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변화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가 없는 듯, 혹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 죄가 없어지는 듯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이 들 수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감독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58:42~43) 죄를 범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감독과 상의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미치는 영향력은 끝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죄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알마 이세가 한 다 음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앨마서

36:17~20)

사탄은, 우리가 일단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것이 상실되어 차라리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제념에 빠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감독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곤혹스러울 뿐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자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 공감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세주의 속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님을 찾아가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독님은 여러분이

지고 다녔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감독님께서 여러분이 회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여러분에게 경전의 어떤 구절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을 정기적으로 찾아오라고 당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독님은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신의 권고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분은 여러분이 새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감독님이 권고하시는 대로 따를 때, 여러분은 희망에 가득 차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고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구세주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 5. 긍정적인 면을 바라봄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보낸다면, 그것은 자신을 일생 동안 감옥에 속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지닌 훌륭한 성품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창조된 아름다움을 즐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성품을 창조한 것입니다.



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수학 시험을 잘못 보았을 경우,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날 시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보지 못했어.”라고 하십시오.

마틴 이 피 셀리그만이 쓴 “후천적인 낙천주의”에서 소개한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정을 덜 손상시키게 됩니다. 기록이 별로 좋지 않은 세계적인 체육 선수의 얘기를 들어 봅시다. 아마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은 별로 상황이 안 좋았어. 하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거야.” 챔피언은 이처럼 내일의 성공을 위해 문을 열어 둡니다.

긍정적이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제시한 것에 왔다고 칭찬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네. 저는 시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경우, 사양하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 6. 기분 좋은 얘기를 함

혹시 주변에 그저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편해질 것이며 상대방 역시 그럴 것입니다. 상대방을 헐뜯는 데 기력을 소모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옷을 잘 입고 용모를 준수하게 꾸미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가족의 각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키, 생김새, 인종적인 배경 및 능력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 7. 창조를 찬양함

우리는 때때로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복돋워 주기 위하

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교리와 성약 59: 18~20)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피어 있는 곳을 산책해 봅시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맛과 냄새를 즐겨 봅시다. 하늘에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즐기며 기쁨을 누리 봅시다.

## 8. 구세주의 승리를 기뻐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여러분이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구세주로 인해서, 여러분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 9. 예언자를 따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오늘날 자주 청소년들의 강진함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교회 대관장에 취임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보다 더 강한 세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적, 영적으로 자신들을 강화하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이나 의심도 없습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굳세고 용감하게 서 계십시오”. 성도의 빛, 1995년 6월호, 특별 부록, 3쪽)

## 10.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소년 시절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였습니다. 사실 그는 한 친구에게 농구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키가 무리무리 자랐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한 가지 쓰라린 경험을 했는데, 바로 친구들만 농구팀에 선발되고 자신은 탈락한 일이었습니다.

맥스웰 장로는 운동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잘하는 사





람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가 겪은 쓰라린 경험은 오히려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의 지혜와 영성과 통찰력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정해진 여러분의 역할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곳에서 여러분은 혼란한 시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 새로운 시각

이번에는 댄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살펴봅시다.

“야, 댄, 어서 와라! 와드 농구팀에 너의 도움이 필요해.”

“여기에 오게 되어 저도 기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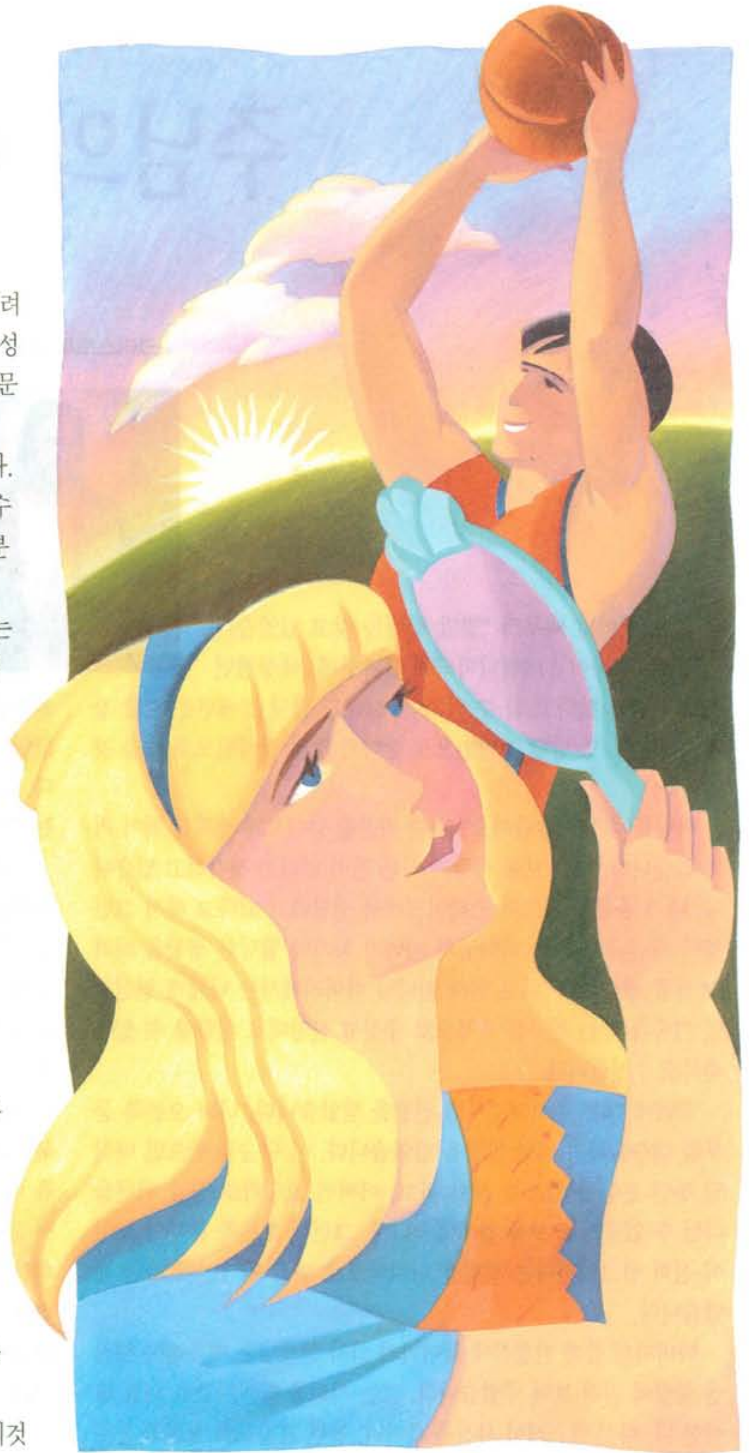
“자, 연습 운동으로 몸을 풀어라. 네가 외곽 슛을 좀 맡아 줘야겠어.”

“좋아요, 스티브하고 하면 호흡이 맞을 것 같은데요. 스티브는 패스를 잘하거든요. 스티브와 제가 짝을 이루면 멋진 콤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 팀이 좀 안 됐는데요.”

거울 앞에 다시 다가선 수잔은 태도를 고치고 자기 모습을 비쳐본다.

“엄마가 주신 리본이 내 머리와 잘 어울리네. 제니퍼가 이것을 보면 탐낼 거야. 이 리본은 제니퍼가 지난 주 청녀 모임에서 입었던 셔츠와 잘 어울리겠는걸. 어머 내 정신 좀 봐. 시간이 다됐네. 서둘러야겠어. 오늘 저녁 청녀 모임에 내가 잘 만드는 과자를 가져가기로 했지.”

마음만 간단히 고쳐먹으면 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에서 소개한 열 가지 제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고 구세주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마**음만 간단히 고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성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정해진 여러분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님의 손에

크리스토퍼 스윈슨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114센티미터에 불과한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더 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발달 장애인인 발달 장애인입니다. 또 발달 장애인으로 살다가 발달 장애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비밀을 좀 털어놓을까요? 나는 자신을 남다르게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헌신적인 가족과 좋은 친구를 축복으로 주셨고 신앙대로 생활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작년에 나는 수치의료부터 진찰을 받았습니다. 나의 오른쪽 둔부를 대수술하기 위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여러 달 동안 온몸에 깁스를 해야 하고, 어쩌면 고등학교 상급 학년을 다닐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둔부의 모양이 심히 일그러졌다는 진단을 마지막으로 받은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진찰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불빛에 비쳐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나를 검사한 뒤, 다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오른쪽 둔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에 약간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빼고는 둔부의 상태는 아주 양호하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벌써 여덟 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고 작은 수술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찰을 받기 전에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 차례 기도했고 사랑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둔부는 완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가 체험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었지만,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둔부에 이상이 생긴 것을 계기로 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했고,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참된 마음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 수술과 장애가 없었다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경전 공부와 운동을 게을리 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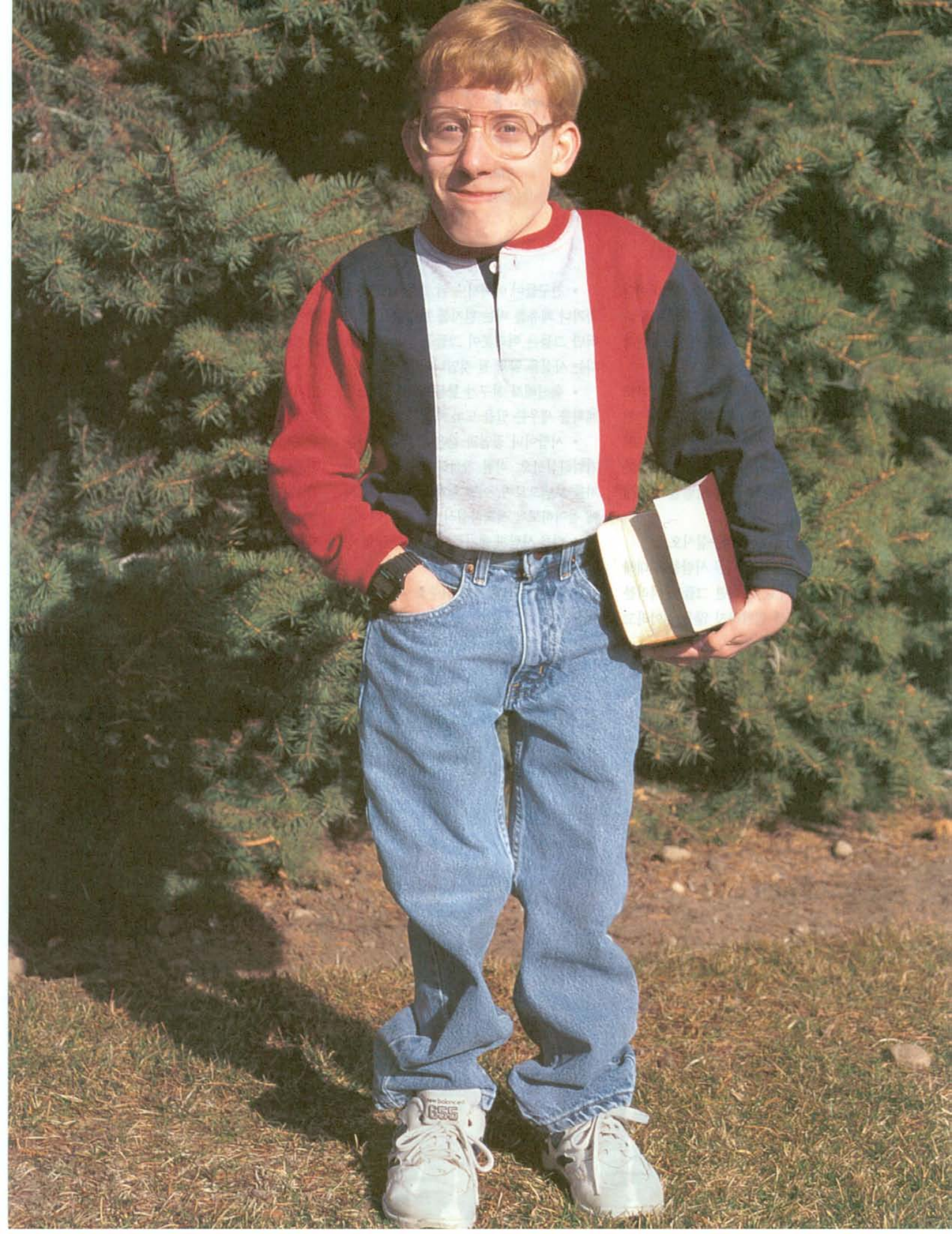
하루도 빠짐없이 시련을 겪었지만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겪은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처럼 우리를 파괴하려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처럼 해의 영광에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성숙한 자세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험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잘 알고 계시며, 이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난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역자주







# 친구가 됨

머리서 디 톨슨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곧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요한복음 15:13~14 참조)

우리 모두가 친형제 자매나 조카, 이모가 될 수 없지만 친구는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봅시다.

-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친구들의 생일을 기억하십시오.
- 친구의 출생지,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 그들에 관한 것을 알아 두십시오.
- 친구의 집안일, 숙제를 도와주거나 그들의 형제 또는 자매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 친구들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문병을 가거나 쾌유를 비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술선해서 친구가 활동 계획이나 소풍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도와 주십시오.
- 시험이나 공연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기억하십시오. 직접 참석하거나 격려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계획하십시오.
-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친구를 칭찬하십시오.
- 대화를 할 때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 친구의 문제를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 친구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 점을 진솔하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친구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 점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 쉽게 화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 여러 가지 면에 관심을 갖고, 친구를 많이 사귀십시오. 달갑지 않은 친절과 친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경쟁은 친구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건전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지나치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려 하거나 친구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지식이나 다른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 친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신뢰하십시오. 친구가 여러분을 믿고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면 그것을 비밀로 지켜 주십시오.

•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하십시오.

• 여러분이 보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 친구가 여러분을 친구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







그림: 제임스 자그 조세프 티소(1840~1920). 선생들 중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

예루 살렘을 방문하고 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길을 잃었다고 근심하여 찾아 다녔다. 사흘 만에 그들은 성전에 있는 예수를 찾았는데, 그때 성전에서 선생들이 예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지혜의 대답에 놀라워했다. (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2:46~47 참조)





**아** 이보리코스트의 교회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희생과 인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16쪽 “아이보리코스트의 교회 개척자들”, 참조)

